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생활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 형 하*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Meaning of Economic Lif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Hyoung-Ha Lee*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경제생활 경험의 역동성을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질문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경제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연구결과, 의미 있는 진술 67개를 추출하였고, 15개의 중심 의미를 조직하였다. 15개의 중심 의미는 ‘팍팍한 삶’, ‘자녀교육비, 보험료 등의 소득 불안’, ‘적응을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 도모’, ‘일자리를 통한 경제안정을 추구’, ‘친정가족에 대한 지원과 회귀 기대’라는 5개의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연구자는 해석학적 글쓰기 적용을 위해 1인칭 화자를 통해 구조적 기술을 하였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체험한 한국의 경제생활의 의미는 ‘팍팍한 현실을 적응해 나가기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를 추구하며 가족중심의 힘겨운 대처 과정’이었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안정적인 노후경제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의 (가칭) ‘부부합산’ 제도의 적용으로 노령연금의 수급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의 적극 도입 등 다양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Keywords : 결혼이주여성, 경제생활, 현상학적 연구, 해석학적 글쓰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isten to vivid story on economic lif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using phenomenological study out of qualitative study methods, and to analyze the meaning of dynamicity of experienc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research question is “What is the meaning of economic life that marriage immigrant women experience?” From the research, 67 meaningful statements were abstracted and 15 core meanings were organized. The 15 core meanings were categorized as 5 theme categories such as ‘Tough Life’, ‘Unstable Income such as

•제1저자 : 이형하

•투고일 : 2013. 10. 24, 심사일 : 2013. 11. 10, 게재확정일 : 2013. 11. 21.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 이 논문은 2013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경제생활의 의미에 관한 연구”)을 수정하고 확장한 것임.

Children Education Expense and Insurance Premium', 'Search for Changes in Life Style for Adaptation', 'Pursuit of Economic Stability through Employment', 'Expectation of Supports and Return to Married Woman's Parents' Home.' The researcher made structural description through first person speaker for the application of hermeneutical writing. In other words, the meaning of economic lif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is 'difficult coping process to family-oriented culture pursuing changes in life style to adapt themselves to difficult reality.' Various undertones of practice were proposed through those statements such as policy to expand opportunities to receive an old-age pension by applying 'Joint Scheme for Couples' (Virtual Name) to People's pension for stable economic lif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old age.

▶ Keywords : Marriage Immigrant Women, Economic Life, Phenomenological Study, Hermeneutical Writing

I. 서 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해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의 생활상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사회적으로 평등한 경제활동 참여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경제적으로 가족과 본인의 삶의 질의 확보를 통해 건강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들의 경우,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순간부터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1]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에서는 한국생활의 적응문제,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동시에 경제적 문제, 한국인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대체로 낮은 편임을 보고하고 있다.[2][3]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을 출신배경으로 하는 이주여성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낮은 경제적 지위와 열악한 문화자본으로 인해 자국의 여성들과 결혼하기 어려운 남성들과의 결혼은 경제적 좌절의 이중고를 초래한다.[4] 이에 더하여 결혼이주여성과 주변가족의 만남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가족성원간의 만남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과거성, 즉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출신이라는 점, 결혼을 위해 신랑측이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했다는 등등의 과거성에 의해 역할이 부여된다.[5] 더욱이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배척의 생기기제로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문화적 우월주의와 종교적 선민의식이 개개

인의 우월의식과 결합되어 '만만한 이주민'을 희생양 삼는다고 지적하고 있다.[6]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생활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수급과 비수급이라는 극단적인 기초생활과 관련한 생존의 문제를 양적연구를 통해 접근하거나, 사회경제활동의 제도적인 제약요인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광범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들은 이들 이주여성들이 맞닥뜨리는 경제생활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내지 못한 일정한 한계점이 있다.[7][8]

이에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상사에서 마주치는 팍팍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한 삶의 역경을 제한적이거나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미래의 경제적 실존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그녀들의 목소리에 담긴 진솔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현실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배제에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대처방식을 해석하고 재구조화하며 차별과 편견의 실태를 풀어 헤쳐 나가는 문화적 유능성(competence)에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생활 경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에 귀울이고, 경험의 역동성을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얻어지는 풍부한 자료를 토대로 경제생활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질문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경제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II.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생활실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 차별,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언어문제를 제외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여성결혼이주자의 경제적 특징
Table 1. Economic Characteristic of Immigrant women

구분	범주	명(%)
주택 소유 형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39,690(33.7)
	배우자 부모 소유	24,457(20.8)
	전세 또는 월세	47,597(40.4)
	기타	5,944(5.1)
	계	117,689(100.0)
거주 환경	매우양호	11,091(9.4)
	양호	35,711(30.1)
	보통	50,757(42.8)
	열악	17,668(14.9)
	매우열악	3,246(2.7)
계	118,472(100.0)	
월평균 가구 소득	50만원미만	5,893(5.1)
	50-100만원미만	18,882(16.4)
	100-200만원미만	44,466(38.6)
	200-300만원미만	21,310(18.5)
	300-400만원미만	6,277(5.4)
	400-500만원미만	1,865(1.6)
	500만원이상	2,093(2.0)
	모르겠다	1,446(12.5)
계	115,233(100.0)	

2009년에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주자의 경제적 특성을 아래와 같다(표 1. 참조). 주택 소유형태는 전세 또는 월세가 40.4%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200만원미만이 38.6%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미만의 저소득층의 비율이 21.5%나 되었다. 2009년 전국 전체가구의 월평균 소득 344만원과 비교할 때, 여성결혼이주자 가구의 소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12.5%가 본인 가족의 소득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권을 남편이 소유하고 부인과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9]

한편, 배우자와의 갈등유형별 분석에 의하면, 경제문제로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2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사 및 육아부담 24.2%, 자녀문제 22.7%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또한, 다문화가족 빈곤경험과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 빈곤경험률은 28.9%로 높게 나타났다. 빈곤유형에 있어서는 생활비 금전차용이 24.4%, 사회보험료 미납경험 14.9%, 의료기관 미이용·치료포기 9.0%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10]

표 2.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Table 2. Conflict Experience with Spouse

단위 : %

구분 (갈등정도)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교육, 생활 방식)	가사 및 육아 부담	부부 관계	내부 모 형제 자매 관계	배우 자의 부모 형제 자매 관계
매우그렇다	5.4	4.7	5.0	4.7	3.5	6.3
약간그렇다	19.2	18.0	19.2	11.0	8.5	13.2
보통이다	36.3	33.1	38.7	38.7	36.6	37.5
별로그렇지않다	25.2	16.4	25.2	25.2	24.9	23.7
전혀그렇지않다	11.0	12.6	17.3	17.3	23.3	16.7
갈등경험없음	2.8	15.1	3.1	3.1	3.2	2.5

표 3. 빈곤 경험 및 유형
Table 2. Poverty Experience and Type

구분		비율(%)
빈곤경험률		28.9
빈곤 유형	사회보험료 미납경험	14.9
	전기, 수도 끊긴 경험	4.6
	생활비 금전차용	24.4
	의료기관 미이용·치료포기	9.0

III.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는 '사람들에게 이 현상에 대한 경험의 본질과 구조는 무엇인가'라는 중심질문을 가지고 시작한다. 연구자는 사람이 경험한 것에 대한 기술과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직관하고 해명하면서 현상의 의미를 구별하면서 연구를 진행한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방법

으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현상을 밝히는 것이다.[11]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인 경험한 경제생활의 의미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인 경험하는 한국생활 중 경제생활의 본질에 좀 더 깊고 정확하게 다가서서 현상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결혼한지 5년이 경과하여 스스로 한국의 경제생활에 대한 체험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지역의 다문화 지원 관련 센터와 상담소의 소개로 결혼 5년차 이상이면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이주여성을 1차 선정하였으며, 1차로 선정되어 인터뷰를 진행한 결혼이주여성의 소개를 받아 2차 연구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총 13명으로, 연령대는 20대 3명, 30대 5명, 40대 5명이었다. 출신국가는 일본 3명, 베트남 4명, 중국 2명, 태국 2명, 필리핀 2명이었다. 한국에 결혼이주기간은 최소 5년에서 20년이였다. 현재 직업은 주부 7명, 영어강사 2명, 문화해설사 1명, 다문화지도사 1명, 통역사 1명, 초등학교 청소일 1명이였다. 경제상태는 상 1명, 중 4명, 하 7명, 무응답 1명이였다. 자녀수는 자녀가 없는 경우부터 최대 5명까지였다.(표 4. 참조).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7개월 정도 이루어졌다. 면담장소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상담센터의 상담실, 연구자의 연구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시간은 1회에 70분에서 100분 정도 걸렸으며, 면담횟수는 1회에서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전체 분석과정은 Colaizzi의 분석방법에 따라 자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다음의 6단계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12]

1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느낌을 얻기 위해 모든 참여자의 진술을 읽는 것으로 연구자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생활 경험에 대해 최대한 공감하고자 면담내용을 듣고 문자화된 원 자료를 주의 깊게 여러번 읽었다. 2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진술에서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 있는 말이나 문장을 찾아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67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추출되었다. 3단계에서는 의미 있는 말이나 문장들로부터 구성된 의미를 만드는 것으로 연구자는 직관과 분석기술을 이용해 의미를 구성하였다. 4단계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의미를 주제 묶음으로 분류하여 조직하는 것으로 본 연구자는 원자료와 구성된 의미와의 관련성을 재확인하였다. 5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통합하여 현상에 대해 해석학적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의 주제 묶음을 통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생활의 의미에 대한 최종적인 1인칭 화자를 통해 일반적 구조적 기술을 하였다. 6단계에서는 최종적인 기술을 타당화시키는 과정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되돌아가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 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Lincoln과 Cuba(1985)가 제시한 중립성(neutrality), 일관성(consistency), 사실적 가치(true value), 응용성(appllicability)을 적용하였다.[13]

표 4. 연구 참여자 특성
Table 5.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연구 참여자	출신 국가	연령	결혼 이주 기간	직업	자녀 수	경제 상태
1	중국	32	15년	주부	1	무응답
2	태국	34	10년	통역사	1	중
3	중국	33	6년	주부	2	중
4	베트남	32	6년	주부	1	하
5	베트남	25	5년	주부	1	중
6	필리핀	40	13년	영어강사	1	하
7	태국	40	10년	주부	0	하
8	필리핀	34	13년	영어강사	3	상
9	베트남	29	8년	주부	3	하
10	일본	46	20년	문화해설사	2	중
11	베트남	27	7년	주부	4	하
12	일본	48	13년	청소	0	하
13	일본	42	14년	다문화지도사	5	하

IV. 연구결과

1. 주제분석

결혼이주여성이 체험한 한국의 경제생활에 대한 원 자료를 연구자가 여러 차례 읽으면서 의미있는 진술 67개(162개념)를 추출하였고, 의미 있는 진술을 주의 깊게 보면서 15개의 중심 의미를 조직하였다. 15개의 중심 의미는 '부족한 생활비, 카드빚', '경제주도권이 주어지지 않음', '시댁 부모님의 친정식구 배려에 무심함', '자녀교육비, 보험료가 걱정',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구별', '포인트 활용', '아이들과 미리 약속하여 절약함', '가계부, 영수증 모음', '덤으로 주라고 요구함',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큼', '안정적인 일자리 원함', '교육으로 끝나고 일자리 연결이 안됨', '친정식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한계', '노후준비가 어려워 본국에서 노후생활 희망'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중심의미는 '파팍한 삶', '자녀교육비, 보험료 등의 소득 불안', '적응을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 도모', '일 자리를 통한 경제안정 추구', '친정가족에 대한 지원과 회귀 기대'라는 5개의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하였다(표 5. 참조). 5개의 주제 묶음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제생활 과정에서 경험하는 '파팍함'과 '경제안정을 통한 회귀'의 배경이 되는 사건과 인식 과정에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파팍함'과 '경제안정을 통한 회귀'의 복합적 이유로소 작용한다. 각 주제들은 대부분 참가자들의 이야기 속 언어들 중에서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메시지들을 뽑아 구성한 것이다.

1-1. 파팍한 삶

결혼이주여성이 체험한 한국의 경제생활에 대한 경험은 생활비의 부족과 경제권을 시부모님에게 의존해야 하는 파팍한 삶이었다. 남편의 무분별한 카드사용으로 갚아야 하는 높은 이자에 속상해 하고 있었다. 부족한 생활비마저 시부모님의 통제하에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제적 의존은 참기 힘든 상황임을 이야기 하였다. 더욱이 친정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과 양변계(bilateral) 사회의 특성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이야기도 하였다.

“저는 남편이 카드 사용하면 가끔은 싸우고 그래요. 저는 진짜 카드 쓰는 거 진짜 싫어서.. 맨날 그랬어. 당신은 수수료 얼마 얼마 사용하면서 저가 그게 있잖아요. 일 얼마나 힘든데 그거 생각안하고 저는 진짜 그런 거 마음에 안 들어요.”

표 5.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경제생활에 대한 주제묶음
Table 5. The Subject Category of Economic life experienced by immigrant women

주제 묶음	중심 의미
파팍한 삶	- 부족한 생활비, 카드빚 - 경제주도권이 주어지지 않음 - 시댁 부모님의 친정식구 배려에 무심함
자녀교육비, 보험료가 걱정	- 자녀교육비, 보험료가 걱정 - 남편의 나이들에 따른 소득 불안
적응을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 도모	-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구별 - 포인트 활용 - 아이들과 미리 약속하여 절약함 - 가계부, 영수증 모음 - 덤으로 주라고 요구함 -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큼
일자리를 통한 경제안정을 추구	- 안정적인 일자리 원함 - 교육으로 끝나고 일자리 연결이 안됨
친정가족에 대한 지원과 회귀 기대	- 친정식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한계 - 노후준비가 어려워 본국에서 노후생활 희망

“많이 속상하죠. 속상도 하고 가족일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지. 근데 거의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한테 먼저 드리잖아요. 부모님과 결정을 하잖아요. 생활비는 얼마. 이렇게...”

“남편은 돈을 꼬박꼬박 벌고 있지만 그래도 생활에서는 힘들어요. 솔직히 봉급쟁이지만 그래도 생활이 여가 그런 것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모국에 부모님도 계시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처갓집을 생각안하지만 저희 문화는 처갓집을 신경 안쓰면 안되지요.”

1-2. 자녀 교육비, 보험료 등의 소득 불안

한국의 정주민도 자녀 교육비에 대해 걱정하고,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결혼이주여성이 체험한 자녀들의 교육비와 가족을 위한 보험료 부담은 가계를 꾸려나가기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남편과의 연령차는 남편의 입장에서 머지않아 다가올 노후의 소득 불안과 아내의 입장에서 당장 가정경제에 필요한 소비를 해야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충돌하는 양상도 보였다.

“저는 돈 벌지만 돈이 없어요. 제가 다하잖아요. 제 걱정은 학교, 학원비. 지금 3학년인데 학원 다녀야 되고 공부하러 다녀야 되고,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이에요.”

“교육비 때문에 거의 바다. 그리고 보험.”

“남편이 너는 앞으로 생각해야지 왜 지금만 생각하느냐 그러는데 저는 반대였어요. 지금 먹고 사는게 중요하지 다음이 뭐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이 노후 준비 하고 있는데 항상 저를 보고 앞으로 너는 얼마든지 벌지만 나는 얼마 못 버니까 지금 아껴써야해 돈 많이 못줘요. 그렇기도 하고 있어요.”

1-3. 적응을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 도모

결혼이주여성들은 팍팍한 현실의 경제여건에 대처하는 다양한 적응기제를 통해 생존전략을 펼쳐나갔다. 시장에서 국산과 중국산에 대한 구별을 통해 소비주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였고, 포인트를 활용하여 가계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열의를 나타냈다. 또한 영수증을 모으고, 가계부에 지출내역을 기록하였다. 마트에 가기 전 아이들과 살 물건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며, 시장에 가서는 덤으로 주려는 요구하는 등의 알뜰한 소비주체로 행동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노후에 필요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도 충당되어 노후불안에 시달리는 가정에 작은 기대감으로 작용하였다.

“저는 한국사람 물어보는 것이라 똑같아요. 얼마예요? 죄송하시지만 중국산 이예요? 한국산 이예요? 물어보니까 성질 내는 것이예요. (중략) 이것이 한국산이면 한국산이라고 중국산이면 중국산이라고 표시해야되요.”

“돈 없이 포인트로 물건 가져와요. 시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아야 간장 사라. 알았어요. 하나로 마트 가서 포인트로 간장 두 개 사왔어요. 포인트도 사용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남편이 가끔씩 술을 드실 때 돈이 어디에서 나왔나 물어보거든요. 처음에는 모와 뵈어요. 그때부터 하나씩 영수증 붙였어요. 남편이 달라고 하면 영수증 보여줬어요.”

“가계부요? 그거 저도 해요. 왜냐면 돈 나가면 10만원 20만원 금방 금방 나가잖아요. 교육비, 생활비...”

“마트가기 전에 이번에는 장난감 그런 거 안 산다. 먹을 것만 사줄 거야. 필요한 것만 사줄 거야. 엄마 그러면 구경만 할게. 그런 거.”

“맞아요. 요즘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중략)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 노후 이걸로 먹고 살면 되겠다.”

1-4. 일자리를 통한 경제안정을 추구

결혼이주여성들은 가계경제의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이자 자립적인 삶의 기초는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희망이었다. 한시적인 일자리나 급하게 사람부리고 해고하는 단기간의 고용에 대해서는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음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지역의 여러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업관련 교육과정이 실제 취업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자활에서 언제 그만하라 할 때 까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끝나면 일을 안 써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또 과외라도 몇 명씩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부인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한데 보통 공장에 가니까 바쁠 때는 아 이렇게 바쁘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바쁘고 그런데 갑자기 일이 없어지고 생활 보장이 없는거예요.”

“근데 그 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게 문제인거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자격증을 따 놓아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고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일단 배워놓고 도움 된다 그것만 알지. 지식이지고는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5. 친정가족에 대한 지원과 회귀를 기대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넉넉하지 못한 현실적 여건과 시댁식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정식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친정에 대한 지원은 머지 않아 다가올 준비되지 않은 남편의 노후생활,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자신과 남편의 생활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걱정과 맞물려 출신국으로의 회귀를 꿈꾸기도 하였다.

“부모님이 간섭을 안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친척이 더 간섭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문화가정을 보면 대부분은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지만 다문화가정들은 장남도 아니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근데 친척들은 부모님 잔소리 하는 것만 생각하나요. 그래서 돈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외국여자인가 돈 모국에 많이 보낼까봐 이렇게 해라 해라 간섭을 하는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보내면 30만원 보내요. 돈 있으면 보내

고, 돈 없으면 보내지 말라고 해요. 우리엄마는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농사하잖아.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남편은)살다보면 통할꺼예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아이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아이가 엄마아빠를 따라가고 싶으면 가서 00국 가서도 취직하고 뭐 그렇게요.”

2. 해석학적 글쓰기

결혼이주여성이 체험한 한국의 경제생활의 의미는 ‘확박한 현실을 적응해 나가기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를 추구하며 가족 중심의 힘겨운 대처과정’이었다. 자녀교육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 여건은 따라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힘들음 대처하기 위해 출신국에서 남편과 함께 노후를 지내고 싶어하는 욕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주제를 통합하여 1인칭 화자를 통한 해석학적 글쓰기를 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이다. 나도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싶다. “옷 이런거 옷 이쁘잖아요. 가격 10만원. 사고 싶는데 가끔씩.. 옷 이쁘다. 가격보고 와 10만원이다. 사고 싶는데 나중에 사야지. 지나가면 돈 없어요. 마음 속에만. 돈 없다가 월급 나오면 다른 것 하느라 돈 없잖아요. 다음에 꼭 가야지. 지금까지 안 샀어요.” 이런 확박한 경제적 현실에 남편은 벌어들여 돈을 어디에 썼냐며 화를 낸다. “왜냐면은 우리 남편이 가끔씩 술을 드실 때 돈이 어디에서 나왔나 물어보거든요. 처음에는 모와 뒀어요. 그때부터 하나씩 영수증 붙였어요. 남편이 달라고 하면 영수증 보여줬어요.” 나름대로 계획성 있는 살림을 하고자 노력했다. “가계부요? 그거 저도 해요. 왜냐면 돈 나가면 10만원 20만원 금방 금방 나가잖아요. 교육비, 생활비...”. 소비생활 가운데서도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산과 중국산을 구별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하고자 하였으며, “하나로 마트 가서 포인트로 간장 두 개 사왔어요. 포인트도 사용 할 수 있어요.”. 이처럼 모아둔 포인트를 활용하여 현금지출을 줄이는 대처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남편의 노후에 대한 불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아끼고 소비를 줄이는 노력과 병행해서 자신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 주어져야 좋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한국에서 배운 교육을 활용해서 좋은 일자리와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였다. “자격증을 따 놓아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고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일단

배워놓고 도움 된다 그것만 알지. 지식 가지고는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결혼 전 친정식구가 있는 나라로 가고 싶다고 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친정가족에 대한 지원의 한계를 나타내는 나랑 비슷한 경제적 상황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가 친정국가로 가고 싶은 희망을 보였다. “우리가 아이가 일단 대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는 열심히 해서 살아요.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면 00국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아이 아빠와 저만요. 둘이 00국으로 가서... 왜냐하면 돈이 많지 않아도 물가가 안높으니까.” 그런데 노후에 친정국가에 살기위한 준비는 전혀 안된 남편을 동반하여 가는 일이란 나의 한국결혼 생활의 첫 시작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저희 신랑도 9년을 같이 살았는데 인사말 밖에 몰라요.”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한국의 경제생활의 의미를 내부자적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의미 있는 진술 67개를 추출하였고, 15개의 중심 의미를 조직하였다. 15개의 중심 의미는 ‘확박한 삶’, ‘자녀교육비, 보험료 가격’, ‘적응을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 도모’, ‘일자리를 통한 경제안정 추구’, ‘친정가족에 대한 지원과 회귀 기대’라는 5개의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하였다.

‘확박한 삶’에 함축된 결혼이주여성의 현실 생활은 늘 부족한 생활비와 매달 날라오는 카드값 등은 대부분의 일반가정에서 경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생활의 힘들음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는 남편의 믿음부족과 시부모님의 지난친 통제중심의 생활방식이었다. 이에 더하여 친정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한국의 부성중심의 부양체계와의 갈등은 매워지지 않는 문화간극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자녀교육비, 보험료 등의 소득 불안’에 함축된 의미는 자녀교육을 위해 학원비로 써야 하지만, 현실은 여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가족 구성원의 건강상의 문제를 위해 대비하는 보험료 역시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더욱이 남편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은 결혼이주여성 역시 늘 고민하지만, 남편이 오히려 더욱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현실의 소비에 필요한 비용지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작용하여 생활비 자체를 줄여서 주는 받아들이기 힘든상황을 경험하였다.

‘적응을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 도모’에 함축된 의미는 현재

의 씬씀이에 대한 기록을 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자녀들에게도 마트에 가기 전에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약속받아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을 펼쳤다. 이러한 절약은 남편의 노후연금 보험료에 충당되고 이러한 노후연금에 대한 기대는 미래의 버팀목으로 작용하였다.

‘일자리를 통한 경제안정을 추구’에 함축된 의미는 남편의 경제활동에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역시 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이수에 따른 자격증 취득을 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열망을 보였다. 문제는 자격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연결되지 않거나, 계절적인 혹은 한시적인 일자리에 머무르는 상황을 비판하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의 주체로 나섰으면 하는 바램을 비쳤다.

‘친정가족에 대한 지원과 회귀를 기대’에 함축된 의미는 농사가 주업인 친정가족에 필요한 현금송금을 희망하였다. 시댁의 다른 아들들은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데, 제사를 비롯한 시집살이에 버거워 하는 결혼이주여성 입장에서는 친정 식구에게 송금하는 돈의 액수까지도 간섭하는 시부모님을 결코 이해하기 쉽지 않는 심경을 토로했다. 더욱이 친정부모님에게 현금송금이 여의치 않는 가정의 경우마저도, 남편의 노후에 친정국가로 다시 이주해 그곳에서 정착하여 사는 것을 현실적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남편은 결혼한지 9년이 넘었음에도 아내의 나라 말이라곤 인사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역시 힘든 현실임을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결과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은 현실의 팍팍한 삶에 그저 수동적으로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획’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려는 부단한 노력을 한다는 점이다.

둘째, 남편과의 나이차이는 가정내의 경제생활의 중대한 위기로 작용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직업교육과 적합직종의 개발을 통한 일자리 제공이 요구된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안정적인 노후경제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의 (가칭)‘부부합산’ 제도의 적용으로 노령연금의 수급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결혼에 앞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과 병행하여 주기적인 남편의 아내국가에 대한 이해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가간 경제생활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지, 대처방식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연구 참여자간 분석을 하지 못

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제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생애주기별, 중단적 질적사례분석을 하지 못한 점 역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H. J. Jang. Rational choice and the reality of Multicultural Migrant. Korea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25. No. 4. pp. 189-213. 2011.
- [2] G. Y. Kweon and K. W. Park. A Study on Influence Factors to the Mental Health of Foreign Wives. Social Research. No. 14. pp. 187-219. 2007.
- [3] S. Y. Park, S. J. Ha, J. Y. Song, H. S. Ahn, H. W. Cho and S. Y. Park. The Relations between Concepts of Children, Parent Role Beliefs,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in Korean-Japanese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7. No. 6. pp. 43-54. 2009.
- [4] K. H. Bae and S. J. Kim.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in Regards to the Influence that Family Income and Job Status have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4. No. 3. pp. 5-27. 2012.
- [5] Y. S. Kim and K. M. Lee. The Qualitative study about parent's in law of multiculture family - Hermeneutical grounded theory metholog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2. No. 2. pp. 71-96. 2011.
- [6] Y. S. Kim. A Study of the creation mechanism of exclusion against the immigra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4. No. 2. pp. 5-33. 2013.
- [7] H. H. Lee. A Study on the Meanings and Types of Married Immigrant Women's Community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7, No. 3, pp. 143-155, 2012.
- [8] H. H. Lee. A Qualitative Study on Marriage

- Migrant Women's Experience in the World of Lif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1, pp. 269-277, 2013.
- [9] I. S. Yang, M. S. Min and S. H. Kim.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and Their Employment Policie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0.
- [10] Y. K. Kim, H. M. Choe, K. H. Kim and S. M. Seong. The Change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ocial Welfare Polici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 [11] K. R. Shin, "Criteria for Critique of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6, No. 2. pp. 497-506. 1996.
- [12] P. E. Cola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existential phenomenology. New York: Qxford University Press. 1978.
- [13] Y. Lincoln and E. Guba. The Impact of illness on later life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1. pp. 65-172. 1985.

저 자 소 개



이 형 하

2004: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현 재: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정책, 다문화복지

Email : hhlee62@kwu.ac.kr